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

갈라디아서 6:14 - 18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할례라는 행위보다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 새창조

새창조 이전에 옛창조가 있었습니다. 이 옛창조는 완전하지만 미완성인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이며 원하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옛창조에서 마무리 짓지 않은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보다는 독립하여 살기로 했습니다. 이는 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옛창조는 멸망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창조를 이루기로 하였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이미 시작된 새창조

새창조의 본질은 예수를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옛창조의 결과는 지나가고 새창조의 결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피조세계에 영원을 부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생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왕이셨지만 친구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왕으로서 심판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새창조로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가 완성할 완전한 새창조

새창조의 날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긴장될 수 있지만, 무서운 날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길 것입니다. 그 날에는 이미 창조되었던 것들도 다시 창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이 새 땅으로와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었던 상처를 모두 씻어주시고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매일 유혹과 싸우지만 그 날엔 우리의 인격과 성정이 본질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새창조를 꿈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